

해외금융기관 활용을 통한 아프리카 진출방안

■ 연구책임자

부연구위원 박영호

과제구분	정책
구분 선정 사유	아프리카는 다른 개도국에 비해 국가신용등급이 낮고, 프로젝트 추진에 복합적인 위험이 따르고 있어, 국내 금융기관의 단독 금융자금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선진국 ECA, 다자개발은행(MDB), 중동자금 등과의 협조융자 등을 통한 금융지원 강화방안에 대한 연구수요가 높음.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아프리카는 다른 개도국에 비해 국가신용등급이 낮고, 프로젝트 추진에 복합적인 위험이 따르고 있어 국내 금융기관의 단독 금융자금이 용이하지 않음
- 따라서 선진국 수출금융기관을 비롯하여 세계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유럽투자은행 등의 다자개발은행(MDB), 국제투자은행(IB), 중동 펀드 등과의 협조융자 등을 통해 금융지원 역량을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
- 이들 해외금융기관은 아프리카 개발사업에 대해 풍부한 정보력과 지원경험 및 노하우를 축적
- 최근 들어 아프리카 자원부국에서는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자원개발 및 건설 붐이 불고 있는 가운데 사업단위가 대형화되고 있어 자원조달 능력이 프로젝트 수주의 관건이 되고 있음

□ 유동성이 풍부하고 금융조건이 양호한 외부 금융기관들을 협조유자 파트너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

- 한국은 그 동안 아프리카 정부가 요구하는 인프라 등을 건설해 주고 그 반대급부로 자원개발권을 획득하는 '동반진출 (package deal)' 전략을 추진해오고 있는데, 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프로젝트 파이낸스 (PF) 등을 통한 자금조달이 관건임

■ 연구 목적

□ 한국의 아프리카 진출에 있어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금융조달 역량강화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아프리카 진출기반을 조성하는 데 일조

- 아프리카 시장은 '위험과 불확실성 (Risk & Uncertainty)'이 다른 시장보다 높고 중장기 투자가 필요한 시장인바, 외부 금융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금융지원 이니셔티브를 높이는 것이 중요
- 금융 파트너십(협조유자 등) 구축을 통해 국가신용등급이 낮은 국가에 대한 금융지원에 있어 수반되는 리스크를 분담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 과제명: Sovereign Wealth funds as investors in Africa: Opportunities & Barriers - 연구자(연도): OECD(2011) - 연구목적: 국부펀드의 아프리카 투자에 있어 기회요인 및 장애요인을 분석	- 국부펀드 투자 데이터베이스 분석	- 국부펀드는 MDG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투자재원으로, 아프리카 인프라 개발 투자자금 수요의 50%까지를 충당할 수 있음. - 국부펀드의 아프리카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제사회 및 금융기관들의 역할이 중요
	2. - 과제명: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in developing countries: does regulation make a difference? - 연구자(연도): Colin Kirkpatrick et al.(2006) - 연구목적: 민간부문의 참여로 인프라 건설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면 산업의 사유화에 따른 독과점 문제에 직면하게 됨. 따라서 정부는 규제를 부과하게 됨. 1990년부터 2002년까지 저소득 개발도상국의 자료를 활용하여 인프라 건설에 참여한 FDI와 규제의 질 간의 관계를 계량적으로 분석	- 계량적 분석	- 인프라 건설과 관련된 FDI가 증가함에 따라 개도국 내의 실질적인 규제들이 증가함. - 규제 및 제도의 신뢰도가 약한 개도국에서 외국투자자들은 거대 규모의 인프라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를 꺼릴 수 있다는 점을 밝힘.
	3. - 과제명: Financing Infrastructure in India: Macroeconomic Lessons and Emerging Market Case Studies - 연구자 James P. Walsh, Chanh Park, and Jiangyan Yu(2011) - 연구목적: 인프라 붐과 관련된 거시경제위기 변수들에 관한 계량적 분석과 인프라 개발을 위해 자금을 모집했던 경험이 있는 브라질, 칠레 등에 관한 케이스를 분석	- CEIC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획득한 거시자료를 이용한 계량적 분석 - 케이스 스터디	- 은행권이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금융 제공처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정부주도의 금융제공은 주의를 요함. - 자본시장의 개발은 금융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중요함. 그리고 개인 투자자를 인프라건설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제도와 규제의 개선이 요구됨. - 신용보증을 포함한 정부의 지원은 투자자의 확신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을 주지만 정부는 재정 위기에 대한 관리감독에 더욱 철저해야 함.

본 연구	- 국내 금융기관이 리스크가 높은 아프리카 프로젝트에 단독으로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해외금융기관을 활용한 금융지원 역량 강화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아프리카 진출 기반 구축에 일조하고자 함	- 문헌연구 - 해외금융기관 방문 면담 - 국내 기업 및 공적수출신용기관(ECA) 전문가 회의의 수시 개최	- 국내기업의 아프리카 진출관련 파인낸스 현황 및 문제점 파악 - MCB, 선진국 ECA, 투자은행, 중등 펀드 등의 아프리카 금융지원 현황 및 특성 - 이들 금융기관을 활용하여 투자 진출한 사례 분석(분야별, 프로젝트별) - 국내 기업 차원의 해외금융기관 활용방안 및 정부 차원의 금융지원 확대 방안 제시
------	--	---	--

■ 주요 연구내용

□ 국내 기업의 파이낸스 관련 문제점을 파악하고, 아프리카 진출 시 활용 가능한 해외 금융기관들의 아프리카 자금지원 현황 및 특징 등을 분석

- 수출금융기관(ECA), 국제금융기구 및 지역개발금융기관, 상업투자은행, 사모펀드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봄

□ 이들 금융기관들을 활용하여 실제로 투자 진출 (아프리카 진출 파이낸스) 한국내외 사례들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

- 자원개발, 인프라 건설 등 주요 분야별로 심도 깊은 Case studie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의 실용성을 높임

□ 상기 분석을 토대로 기업 차원의 해외 금융기관 활용 방안과 정부 차원의 금융지원 역량강화 방안을 제시

- 석유 부국 지역인 북아프리카의 경우에는 중동 자금 (이슬람 금융) 활용 방안을 심층적으로 분석(중동 자금의 상당부분이 북아프리카 지역에 지원)

□ 목차

1. 서론
2. 아프리카 진출 한국기업의 금융조달 현황 및 애로 요인
3. 아프리카 진출 세계 주요 기업의 금융조달 사례분석
4. 한국의 외부 금융활용 방안
5. 맺음말

■ 연구추진방법

□ 해외 금융기관 전문가 면담

- 선진국 수출신용기관(ECA), 세계은행, 국제금융공사(IFC), 아프리카 지역개발은행(AfDB, DBSA, DBEA, DBWA 등 지역공동체 개발은행), 유럽투자은행(EIB) 등 다자개발은행(MDB), 국제투자은행(IB), 중동 개발금융기관(ADFB, KFAED, SDF 등)

□ 국내 관련 기업 및 금융기관 전문가 회의 수시 개최

- 국내 대기업 및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신용기관(ECA)
- 중동 금융(이슬람 금융) 전문가

□ 세부 추진일정

- 연구계획심의회: 2013년 3월 말
- 연구중간심의회: 2013년 8월 말
- 연구결과심의회: 2013년 11월 중순
- 세미나 개최: 2013년 9월 말
- 관련 해외 출장: 8월 출장 예정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 국정과제 관련성

NO	국정지표		국정과제	
	코드	지표명	코드	과제명
1	GOVI002	활기찬 시장경제	GOVI526	규제 제도와 법령을 선진화하겠습니다

▣ 기대효과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해외 금융기관과의 공동 파이낸스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한국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활성화에 기여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13.03.01	종료일	2013.12.31
------	---------	------	----	----	-----	------------	-----	------------